■민족문화연구 제92호(2021.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75-209.
http://doi.org/10.17948/kcs.2021..92.175

경주의 두 곳 빈지(賓之)와 본피(本彼), 벽진(碧珍)의 뜻*

정연식(鄭演植)**

목 차

1. 머리말
2. 경주의 두 군데 賓子
3. 賓之, 賓子, 氷之의 한자음
4. 멀고 외진 곳 빈지
5. 賓之, 賓子, 盤子, 本彼의 /*pan/
6. 아득히 먼 들 碧珍의 /*park/와 本彼
7. 맺음말

국문초록

빈지(賓之)는 신라 6촌 가운데 하나였던 본피부(本彼部) 돌기촌[珍支村]의 별명이다. 경주에는 두 빈지가 있었다. 하나는 과거에 돌기촌이라 부른 석계리 주변에, 또 하나는 괘릉 주변에 있었다. 석계리 주변 빈지는 경주 중심부에서 동면의 마을 가운데 가장 먼 곳에 있었고, 괘릉 주변 빈지는 노동3방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다. 한국에는 빈지라는 지명이 붙은 곳이 많은데, 모두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빈지는 멀리 떨어지다는 뜻의 일본어 hanare(離れ)의 원형인 고대일본어의 *pana와 함께 원시알타이어 *piŋa에서 유래되었다. 賓之는 멀리 떨어진 곳을 뜻한다.

本彼는 후기상고음으로는 *pənpra로 재구된다. 本[*pən]의 음은 賓[*pin]과 유사하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21-0103).
** 서울여대 사학과 교수.

고, 彼[*pra]는 r-음운도치로 '벌'을 뜻하는 고대국어 *par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本彼는 '멀리 떨어진 벌'을 뜻한다. 한편 벽진가라[碧珍伽耶]는 후에 본피현(本彼縣)이 되었으므로 碧珍도 本彼와 연관되어 있다. 碧珍[*praktɯn]은 고대국어 *parktur을 표현한 글자로 추정된다. 碧[*prak]는 고대국어 *park를 표현한 글자이며 *park은 아득히 멀다는 뜻의 일본어 haruka(遙か)와 함께 멀다는 뜻의 원시알타이어 *p^{h}ira-k^{h}V에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珍[*tɯn]은 들을 뜻하는 *tur/*tɨr를 표현한 글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碧珍은 아득히 먼 들을 뜻한다.

멀리 떨어진 곳 *pintɕi(賓之), 멀리 떨어진 벌 *pənpar(本彼), 아득히 먼 들 *parktur(碧珍)과 같은 고대국어는 모두 알타이어의 흔적을 보이고 있다.

주제어: 고대국어, 상고음, 알타이어, 신라 6촌, 빈지(賓之), 본피부(本彼部), 벽진가라[碧珍伽耶]

1. 머리말

신라는 경주의 6촌 세력이 연합하여 세운 나라로 알려져 있다. 『삼국유사』에는 6촌 가운데 자산(觜山) 돌기촌[珍支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 진한 땅에 옛날에 여섯 마을이 있었다(…)네째는 觜山 珍支村(賓之, 賓子, 氷之라고도 한다)으로 촌장은 지백호(智伯虎)라 하는데 처음에 화산(花山)으로 내려와 본피부(本彼部) 최씨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은 통선부(通仙部)라 하며, 시파(柴巴) 등의 동남쪽 촌이 속해 있다. (최)치원이 바로 본피부 사람으로서, 지금의 황룡사 남쪽 미탄사 남쪽에 있는 옛터가 최문창후의 옛집 자리였다 하는데 확실한 듯하다.[1)]

한편 그보다 상당히 늦은 자료이기는 하지만 『동경잡기(東京雜記)』(1669)에서는 괘릉에서 용가산(龍加山)까지를 동면(東面) 노동3방(路東3坊)의 빈자(賓子)라 하였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근거로 珍支村을 두 방면에서 찾아 왔다. 하나는 섶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柴巴가 상섶[上薪], 하섶[下薪]의 신계리(薪溪里)와 연관

1) 『三國遺事』 권1, 紀異 新羅始祖赫居世王 "辰韓之地 古有六村(…)四曰 觜山珍支村(一作賓之 又賓子 又氷之) 長曰智伯虎 初降于花山 是爲本彼部崔氏祖 今曰通仙部 柴巴等東南村屬焉 致遠乃本彼部人也 今皇龍寺南味呑寺南有古墟 云是崔侯古宅也 殆明矣"

이 있어 보이고, 신계리 근처의 괘릉에서 용가산까지를 빈자라 했으므로 괘릉 일대에서 찾았다.[2] 또 하나는 본피부 출신 최치원의 집이 미탄사 남쪽에 있었다 하므로 낭산 근처에서 찾았다.[3] 두 곳은 모두 경주 중심부의 동남쪽이라는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최치원의 집으로 珍支村을 찾는 것은 근거가 약해 보인다. 출신지와 거주지는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珍支村, 賓之의 유력한 추정지는 괘릉 근처 하나만 남게 된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있다. 珍支村은 신라의 한자음으로 읽으면 '돌기촌'이 되고, 그것은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石溪里)의 옛 이름이다. 그곳에 선돌이 있어서 돌마을이라는 뜻으로 돌기촌[乭只村]이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치술령(鴟述嶺)의 鴟는 부엉이를 뜻하고, '털뿔'로 새기는 '자(觜)'는 부엉이 두 귀에 솟은 뿔 모양 깃을 뜻한다. 따라서 觜山 珍支村은 부엉산이라 부르는 치술령 기슭의 외동읍 석계리를 지칭한다.[4] 또한 珍支村의 별칭 우돌[于珍]은 '윗돌'을 뜻하는 말로, 현재의 석계리 중에서도 선돌의 위쪽에 있는 상석(上石)을 지칭한다.

『동경잡기』의 賓子는 괘릉 일대이고, 『삼국유사』의 賓之/賓子는 외동읍 석계리 일대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이 괴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경주에 賓之/賓子가 두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석계리의 賓之/賓子는 本彼部가 되었으므로 本彼, 賓之/賓子가 같은 뜻을 지닌 말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성주의 벽진가라[碧珍伽耶]도 신라의 本彼縣이 되었으므로 本彼의 뜻을 碧珍을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뜻이 확인된 本彼, 賓之/賓子라는 지명이 석계리에 적합하다는 것이 밝

2) 末松保和, 「新羅六部考」, 『京城帝國大學創立十週年紀念論文集(史學篇)』, 東京: 大阪屋號書店, 1936;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證 第3分冊 —新羅始祖赫居世王—」, 『朝鮮研究年報』 9, 和歌山: 朝鮮研究會, 1967.
3) 今西龍, 「新羅史通說」, 『新羅史研究』, 京城: 近澤書店, 1933, 5면, 78면; 이병도, 『한국사(고대편)』, 을유문화사, 1959, 368-369면; 김원룡, 「斯盧六村과 경주고분」, 『역사학보』 70, 역사학회, 1976, 8면, 10-11면; 이기동, 「新羅 金入宅考」,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194면, 197면.
4) 정연식, 「경주 부엉산 기슭의 돌마을, 자산(觜山) 돌기촌[珍支村]」, 『한국사연구』 190, 한국사연구회, 2020.

혀지면 嵆山 珍支村이 석계리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입증된다. 이 문제를 과거의 여러 지형도를 활용하면서 역사음운학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결해 보고자 한다.

2. 경주의 두 군데 賓子

1) 괘릉 근처의 賓子, 盤子

『삼국유사』에서 珍支村을 賓之, 賓子, 氷之로도 불렀다고 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동경잡기』(1669)에 빈자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주목했다. 『동경잡기』 각방(各坊)에서는 경주부의 읍내와 4방위 면의 23방을 열거하면서, 동면의 경우에는 노동3방, 노서2방, 동해변2방의 7방으로 나누었다. 그 가운데 노동3방은 사리(沙里)에서 능지(陵旨)까지의 내방(內坊)과 도음방동(道音坊洞)에서 하신(下薪)까지의 외방(外坊), 괘릉(掛陵)에서 용가산(龍加山)까지의 빈자(賓子)를 말하며, 노서 2방은 입실[入谷]에서 구어역(仇於驛)까지의 1방과 냉천(冷川)에서 사일(沙日)까지의 1방을 말한다(〈표 1〉, 〈그림 1〉).[5]

〈표 1〉 경주부 동면 7坊

坊		해당 지역
路東 3坊	內坊	沙里-陵旨
	外坊	道音坊洞-下薪
	★賓子	掛陵-龍加山
路西2坊		入谷-仇於驛
		沙日-冷川
東海邊 2坊		甘浦-仇之
		乃兒-利見臺

■『東京雜記』 권2, 各坊

빈자의 남쪽 경계선인 용가산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입실과 냉천부터는 노서2방이 시작되므로 빈자는 입실과 냉천보다 북쪽 구역을 가리키는

5)『東京雜記』 권2, 各坊

말일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는 용가산을 괘릉리 남쪽 연안리의 산으로 추정했다.[6]

그런데 賓子의 영역은 『동경잡기』보다 200년 전의 기록으로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다. 1469년에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에서는 경주부의 제언(堤堰)들을 사 방으로 나눈 뒤 동쪽의 제언 24개를 소속된 촌 또는 리 이름과 함께 열거하였다. 그 가운데 활성제(闊城堤), 사제(虵堤), 오리제(吾里堤), 물량제(勿良堤), 한산제(閑山堤)가 빈자촌(賓子村)에 있다고 하였다.[7] 다섯 제언 가운데 사제, 물량제, 한산제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활성제는 당연히 활성리에 있었을 것이고, 吾里堤는 『동경잡기』에서는 말방촌(末方村)의 五里堤로 보이고, 『한국지명총람』에도 五里堤 또는 숫못이라는 이름으로 말방리와 인접한 개곡리의 제언으로 나타난다(〈그림 1・2〉).[8] 따라서 활성리와 말방리가 빈자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빈자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밝히려면 괘릉의 남쪽에, 냉천과 입실의 북쪽에 있는 용가산을 찾아야 한다. 〈그림 2〉의 지도를 보면 괘릉 남쪽과 입실, 냉천의 북쪽에 있는 지형지물 가운데 산이라 할 만한 것으로는 넷이 있다. 죽동리의 동쪽 끝부분에 있는, 표고 128.5m의 A산은 주변 지표면의 표고가 87~91m에 이르므로 지면에서의 높이는 약 40m가 된다. 그리고 연안천 건너 남쪽으로는 약 7m 높이의 B산(표고 98.5m)과 약 20m 높이의 C산(표고 99.3m)이 있고, 연안천 북쪽 연못[蓮池] 곁에 약 15m 높이의 D산(표고 89.4m)이 있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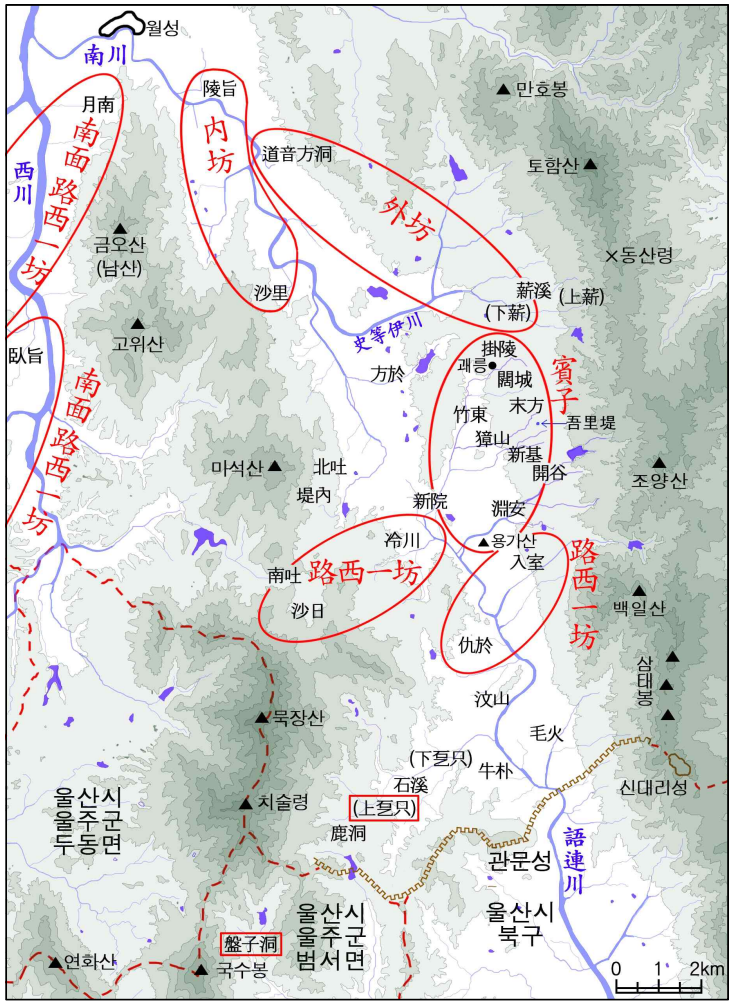
---

6) 三品彰英, 村上四男 編, 『三國遺事 考證』 上, 東京: 塙書房, 1975, 425면. 三品彰英은 괘릉리부터 연안리까지를 賓子로 보고 그곳을 珍支村으로 추정했다.

7) 『慶尙道續撰地理志』, 慶州道 慶州府 堤堰

8)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7(경북편 Ⅳ)』, 1979, 265-266면. 오리제는 1991년의 글래디스 태풍 때 폭우로 터져서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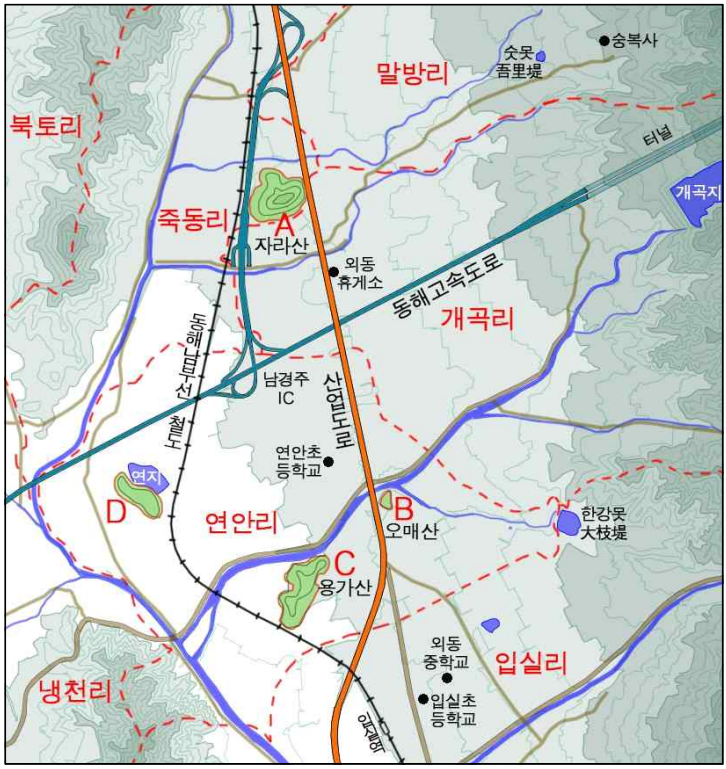
9) 표고는 국립경주박물관・경주시, 『문화유적분포지도(경주시 1:10,000)』. 2008, 260면과 281면의 지형도 울산(003), 울산(013)에 따름.



〈그림 1〉『동경잡기』의 동면 노동3방과 빈자

■ 국토지리정보원, 1:50,000 온맵지형도 〈경주・불국사・울산・언양〉(2013). 등고선 간격 100m

그 가운데 A산은 자라산[鰲山・鼇山]이라 불렀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남구명(南九明: 1661-1717)이 경주 동면(東面) 수리벌[輪火坪]의 별산[鼇山・鰲山]에 묻혔다는 기록 때문이다.[10] 그리고 B산은 오매산이라 하고, C산은 안



〈그림 2〉 연안리 일대의 지형과 용가산

■ 국토지리정보원, 1:25,000지형도 〈입실〉(2013). 등고선 간격 10m. 80m부터 40m간격으로 색을 짙게 하였음.

산(案山)이라 하고, D산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11] 그 가운데 외동읍 연

10) 趙德鄰(1658-1737)이 지은 묘갈명에는 南九明의 묘가 경주 東面 輪火坪에 있다 했고(『玉川集』 권13, 墓碣銘 通訓大夫行順天都護府使南君墓碣銘), 丁範祖(1723-1801)가 쓴 묘갈명에는 경주부 동쪽 鰲山의 북서쪽 기슭에 있다 하였다(『海左集』, 권26, 碣銘 通訓大夫行順天都護府使南公墓碣銘). 남구명의 손자 南龍萬이 지은 家狀에는 鰲山을 龜山이라 했다(『寓庵集』 권5, 附錄 家狀). 양쪽 능선 사이에 끼어 있는 말방리, 활성리, 죽동리, 개곡리 일대의 넓은 들을 수리방, 수리벌이라 하고 한자로는 輪火라 썼는데(한글학회, 앞의 책, 1979, 277면), 輪火坪의 산이라면 죽동리의 A산이 유일하다 할 것이며, 모양도 둥근 산의 한쪽이 삐죽 뻗어 나와 자라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산은 10년 전부터 개발로 깎여 현재 1/3 밖에 남지 않아 자라의 형태를 잃어버렸다.

11) 한글학회, 앞의 책, 1979, 274면.

안리 432, 449-1, 449-4에 해당되는, 동해남부선철도와 7번국도 산업도로와 연안천이 만든 삼각형 안에 놓인 C산을 예전에 용가산이라 불렀다.

C산을 용가산으로 보는 이유는 그곳에 임면(任勉: 1622-1701)의 묘가 있었기 때문이다. 온(溫)을 시조로 하는 풍천 임씨(豊川 任氏)는 면(勉)의 고조인 20세 몽서(夢瑞) 때에 경주로 이주하여 남산동과 석계리로 나뉘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남산동에 이요당(二樂堂)을 지은 24세 적(勣)의 후손들은 죽동리의 자라산에 묘소를 마련했다. 그리고 용가산을 소유하고 있던 석계리의 분파는 24세 면(勉)이 1701년에 사망하자 용가산(龍駕山)에 묻었고,[12] 그 사실이 남구명이 지은 묘갈명(墓碣銘)에 기록되어 있다.[13] C산의 위치는 용가산이 괘릉과 입실・냉천사이에 있다는 사실에도 부합된다.

2) 석계리 근처의 賓之, 盤子・盤自

앞에서 『동경잡기』에 보이는 경주의 賓子는 괘릉리의 괘릉부터 연안리의 용가산까지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 賓子는 외동읍 석계리에 해당되는 觜山 珍支村의 별칭으로 소개되었다.

석계리는 치술령(鴟述嶺) 기슭에 있는데, 치(鴟・鴙)는 부엉이를 뜻하는 치구(鴟舊), 각치(角鴟)에 쓰이는 글자이다. 한편 '觜山'의 觜는 부엉이의 두 귀에 뿔처럼 솟은 귀깃을 가리키는 글자이고, 치술령(766m)과 그 동북쪽의 표고 718m 봉우리를 멀리서 보면 마치 부엉이의 머리 양쪽에 솟은 털뿔[觜]처럼 보이며, 술(述)은 산을 뜻하는 말이다. 결국 자산 돌기촌, 즉 빈자는 부엉산이라는 뜻의 치술령 기슭에 있는 돌마을 석계리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다.[14]

한편 珍支村은 삼국시대 신라의 한자음으로 '돌기촌'으로 읽으며 외동읍 석계리(石溪里)의 예전 이름 돌기촌[乭只村]을 가리킨다. 珍支(돌기)는 원시알

12) 2021년 4월 경주 답사 중에, 1941년에 석계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80년간 살아온 풍천 임씨 임우혁翁에게서 들은 바로는 그곳 풍천 임씨들은 예전부터 任勉의 묘소가 있는 C산을 용가산으로 불러왔으며, 용가산 서쪽 기슭에 있던 任勉의 묘는 2016년에 석계리의 古泉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13) 『寓庵集』 권3, 墓碣銘 處士任公墓碣銘 "公諱勉(…)豐川人(…)高祖諱夢瑞藍浦縣監 自大丘遷于慶(…)至崇禎後五十八年辛巳二月二十五日 以疾逝 享年八十 翼年二月二十日 葬于府治東龍駕山卯龍卯坐酉向之原"

14) 정연식, 앞의 글, 2020.

타이어에서 유래된, 돌[石]의 고대국어 돍[*turk]이 외파(外破)한 상태의 음을 표현한 글자이다. 따라서 嵩山 珍支村은 치술령 아래의 돌마을 석계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곳을 돌마을이라고 부른 것은 석계리 갈미들 들판에 커다란 선돌[立石]이 있었기 때문이다. 석계리 보건진료소에서 정남 방향으로 450m 떨어진 외동읍 석계리 1394-5 지점에는 가로 77cm, 세로 40cm, 높이 2.15m의 커다란 선돌이 동북쪽으로 약간 기운 상태로 있었다.[15] 석계리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점차 개발되면서 2019년경에 선돌 옆의 묘를 이장하고 고사한 소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선돌도 10여m 남남동쪽으로 옮겨 현재는 울산으로 향하는 14번국도 길가 북쪽의 축대 위에 세워져 있다(〈그림 3〉).

선돌이 세워진 곳을 선돌배기라 부르고 근처에 선돌교라는 다리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선돌은 과거에나 현재나 그곳 주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선돌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돌기촌이라 했던 것이다.[16]

그러므로 珍支村이 있었던 석계리가 예전에 빈지, 빈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는 것에 의심을 둘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경주에는 빈자가 두 곳에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그 근거 자료도 찾을 수 있다.

---

15) 국립경주박물관・경주시,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1:10,000—』, 2008, 308면;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遺蹟槪要)1:10,000—』, 2008, 317면.

16) 주민들의 말로는 석계리가 풍수지리상으로 行舟形 형국을 이루어 배의 돛을 세우는 의미에서 세운 돌이라 하지만, 풍수지리학이 생기기도 훨씬 전의 선사시대 유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글학회, 앞의 책, 1979, 272면.



〈그림 3〉 외동읍 석계리의 선돌과 주변 지형

* 선돌은 현재는 위의 항공사진에 표시된 지점보다 14번 국도에 더 바싹 붙어 있다.

■ 上: Daum지도 스카이뷰(2009), 下左(과거):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1:10,000—』, 308면; 下右(현재): 2021.4.23. 촬영

괘릉과 용가산 사이의 빈자는 『경주읍지』에 반자(盤子)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경주읍지』는 1745년(영조 21)경에 완성되어 필사본으로 전해오던 읍

지에 부분적인 가감을 하여 1932년에 출간한 책이다. 그 책에서 외동면(外東面) 18동을 녹동, 석계부터 신계, 괘릉까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나열하면서 마지막으로 반자동(盤子洞)으로 끝을 맺고 있다.[17] 나열 순서로 보건대『경주읍지』의 반자동(盤子洞)는 외동면의 북쪽 괘릉 근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경상도속찬지리지』의 빈자촌(賓子村)과 같은 것으로 짐작되며, 구역의 범위는 다르지만『동경잡기』의 빈자와도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빈지, 빈자는 반자로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반자는 전혀 다른 방향의 석계리와 가까운 곳에 남서쪽에도 있었다. 1789년의『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지금의 외동읍에 해당되는 외방면의 21개 리 이름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18]

> 掛陵里, 活城里, 末方里, 獐山里, 新基里, 開谷里, 輪火里, 龍甘里, 新院里, 北吐上里, 方禦旨里, 沙日里, 堤內里, 南吐上里, 毛火里, 入室里, 鉤魚里, 牛朴里, 上乭只里, 下乭只里, 盤自洞里

위에 열거된 리 이름들을 〈그림 1〉에서 확인해 보면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끝부분에서는 문산리에 이어 석계리를 가리키는 상돌기리, 하돌기리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반자동리(盤自洞里)로 끝나므로, 반자동리가 석계리보다 더 남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반자동리의 실체는 일제강점기에 분명해진다. 1914년에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에 경주군 외동면의 盤子洞은 울산군 범서면의 척과동, 용연동, 사량동과 합쳐 범서면 척과리가 되었고,[19] 지금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의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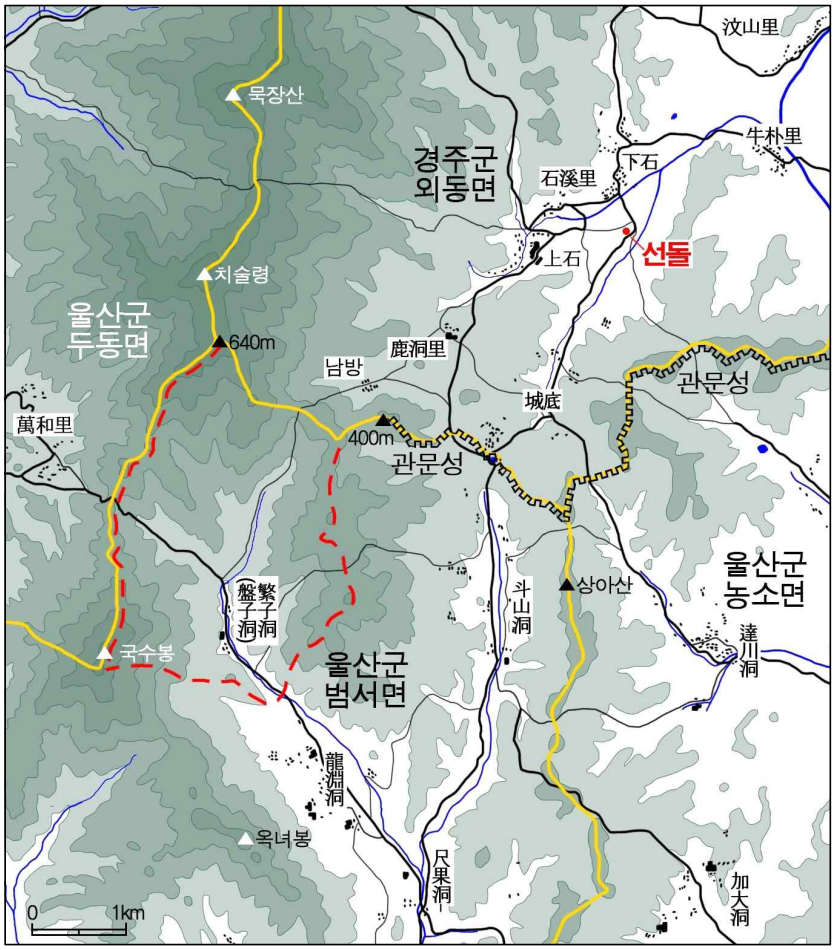
---

17)『慶州邑誌』권3, 地界 "慶州面16洞(…)外東面18洞 鹿洞, 石溪, 汶山, 毛火, 九於, 入室, 冷川, 堤內, 方於, 澀安, 關谷, 末方, 竹東, 活城, 北吐, 薪溪, 掛陵, 盤子". 외동면 18동의 위치는 〈그림 1〉에서 盤子 외에는 모두 확인된다. 그리고 나열 순서도 그렇지만 뒤에 반자동은 1914년에 이미 경주군 외동면에서 울산군 범서면 척과리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때의 盤子는 괘릉 근처의 반자이다.

18)『戶口總數』권8, 慶尙道 慶州 外方面. 新基里의 新基[새터]는 매우 흔한 지명이다. 개곡 서북쪽 大城의 별칭이기도 하고, 입실 동남쪽에도 있었고, 덕동 서쪽에도 있었는데(한글학회, 앞의 책, 1979, 265면, 267면, 275면), 나열된 순서로 보아 大城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龍甘里는 龍駕山과 연관된 지명일 수도 있다.

19) 반자동, 용연동, 척과동은 〈그림 4〉에 보이며, 사량동은 척과동 남쪽에 있다.

을 이름 盤子洞으로 남아 있다.[20] 이를 지도에 표시한 것이 〈그림 4〉이다.



〈그림 4〉 1920년대의 석계리와 반자동 주변

* 노란 선은 1927년 당시의 군・면 경계이고, 검은 선은 도로이다. 원 지도의 聯路와 間路는 모두 표시하였으나, 小路는 일부만 남기고 생략했다.
* 左上의 두동면은 1906년에, 붉은 점선 안의 범서면 번자동(반자동)은 1914년에 경주군에서 울산군으로 이관되었다.
■ 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1:50,000지형도 〈蔚山・朝陽・彦陽・毛良里〉(1927). 등고선 간격 100m

20)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京城: 中央市場, 1917, 592면.

지도를 보면 경주의 盤子洞(繁子洞)이 마치 주머니처럼 불룩 튀어나와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처럼 기이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 서쪽의 울산군 두동면이 1906년 이전에는 경주군 외남면(外南面)에 속해 있었으므로 그리 이상해 보일 것도 없다.

〈표 2〉 빈자촌(賓子村)과 반자(盤子・盤自)

자료	연도	괘릉쪽	석계리쪽
삼국유사	1281	-	賓之 賓子 氷之
경상도속찬지리지	1469	賓子村	-
동경잡기	1669	賓子(村)	-
호구총수	1789	-	盤自洞里
(신구대조)조선전도 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17	-	盤子洞(울산군)
경주읍지	1932	盤子洞	-
현 재		-	盤子洞(울산시)

결국 1914년 이전의 경주에는 盤子(盤自)라 부르는 곳이 두 군데에 있었다. 그 변동사항을 〈표 2〉로 정리했다. 괘릉 근처와 석계리 근처 양쪽에 반자가 있었고 괘릉 근처의 반자를 빈자로도 불렀으므로 석계리 근처의 반자도 예전에 빈지, 빈자로 불렀을 것이다. 그것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3. 賓之, 賓子, 氷之의 한자음

本彼部는 賓之, 賓子라고도 했고, 賓子는 盤子 또는 盤自로 기록되었다. 賓之, 賓子에서 之와 子가 통용되고 盤子, 盤自에서 子와 自가 통용되므로 之, 子, 自가 모두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글자의 음에 관해 우선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한자음에서 之는 '지'로 읽고 子와 自는 'ᄌᆞ'로 읽는다. 之의 음은 장모(章母) 지운(之韻) 평성이고, 子는 정모(精母) 之韻 상성이며, 自는 종모(從母) 지운(脂韻) 거성이다. 세 글자의 중고음을 재구하면 〈표 3〉과 같다.[21]

---

21) B. Karlgren, *Grammata Serica Recensa*, Stockholm: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1957, GSR No. 962a・964a・1237m; 李榮, 『切韻音系』 臺北: 鼎文書局, 1973, 14・143면; 邵榮芬, 『切韻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46・132・140・142면; 王力, 『漢語語音史: 王力文集10』,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7, 609・612・615・621면; E. G. Pulleyblank, *Lexicon of Reconstructed Pronunciation in Early Middle Chinese, Late Middle Chinese, and Early Mandarin*, Vancouver: UBC Press, 1991, pp.404・420・421; A. Schuessler, *Minimal Old*

〈표 3〉 之, 子, 自의 중고음 재구

	之	子	自
	止而切 章母 之韻 止攝 3等 開口 平聲	卽里切 精母 之韻 止攝 3等 開口 上聲	疾二切 從母 脂韻 止攝 3等 開口 去聲
Karlgren	tɕi	tsi:	dz^{h}i-
李榮	tɕiə	tsiə	dzi
邵榮芬	tɕie	tsie	dziɪ
王力	tɕi	tsi	dzi
Pulleyblank	tɕɨ/tɕi	tsɨ'/tsi'	dzi
Schuessler	tśɨ	tsɨ	dzi
Baxter	tsyi	tsi	dzij
鄭張尙芳	tɕɨ	tsɨ	dziɪ
潘悟雲	tɕɨ	tsɨ	dzi

* 풀리블랭크의 음은 전기중고음이다.
* 슈에슬러의 tś-와 백스터의 tsy-는 tɕ-와 같다.

우리말의 초성에 해당하는 之의 성모 精母(ʦ)와 子의 성모 章母(ʧ). 自의 성모 從母(dz)는 우리말에서 각각 독립된 음소로 자리 잡지 않아 모두 같은 소리로 발음되었으므로 세 글자 모두 우리말 초성 자음은 /ㅈ/에 해당된다.[22] 우리말 중성 모음에 해당되는 운모는 대체로 모두 지섭(止攝)에 속하는 3등 개구호(開口呼)의 음이다. 그런데 한국한자음의 규칙으로는 치음 뒤에 지섭의 모음이 올 경우에, 성모가 장조(章組)인 경우에는 '지'로 精母와 從母처럼 정조(精組)인 경우에는 'ᄌᆞ'로 읽었다.[23] 그 규칙대로 之의 한자음은 '지'가 되고, 子와 自는 'ᄌᆞ'가 된 것이다. 즉 초성 자음의 영향을 받아 뒤의 모음이 변화된 것이다. 그러나 'ㅣ'와 'ㆍ'는 멀리 떨어진 음이 아니다. 〈표 3〉을 보면 중국어에서도 之, 子, 自의 주요모음은 대체로 전설고모음 [i] 또는 중설고모음 [ɨ]로 나타나는데 둘은 서로 가까운 음이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기에 한국한자음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삼국이 한자음을 읽는 방식도 달랐다. 삼국시대 백제, 신라는 중국 남부와 교류하여 그곳

Chinese and Later Han Chinese: A Companion to Grammata Serica Recens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9, pp.98・102・283; W. H. Baxter,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2, pp.809・811・451; 鄭張尙芳, 『上古音系(第2版)』,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13, 244-246면; 潘悟雲, 『漢語歷史音韻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0, 60・86면.

22) 'ㅈ'이 과거에 ʦ였는지, 아니면 ʧ였는지 의견이 엇갈리나 대체로 ʦ로 추정하고 있다.

23) 伊藤智ゆき, 『朝鮮漢字音研究(本文篇)』, 東京: 汲古書院, 2007a, 149-150면.

문화를 받아들였으므로 낙양음(洛陽音)이나 장안음(長安音)이 아닌 강동방음(江東方音)을 사용했고 그것은 일본의 오음(吳音)의 뿌리를 이룬 음이다. 강동방음이나 오음에서는 止攝의 지운(支韻), 지운(之韻), 지운(脂韻)이 모두 [i]로 발음되었다.[24] 따라서 之, 子, 自가 삼국시대의 표기였다면 모두 '지'로 읽었을 것이다.

결국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之, 子, 自의 음은 같거나 아주 비슷해서 큰 장애 없이 넘나들 수 있던 표기이다.

한편 賓之는 어떻게 해서 氷之로도 표기된 것일까? 한국한자음이나 표준중국어에서도 賓은 '빈'으로 읽고 氷은 '빙'으로 읽으며, 중고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25] 그런데 氷을 '빈'으로 읽거나, 賓을 '빙'으로 읽은 사례가 있다. 중국 방언의 경우 조주어(趙洲語)에서는 賓은 '빙'으로 氷은 '비엔'으로 읽으며, 객가어(客家語)에서는 빙을 '벤'으로 읽는다.[26]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도 賓의 한자음이 '빈'과 '빙' 두 가지였다. 賓의 음은 『훈몽자회』(1527)와 『광주판천자문』(1575)에서는 '빙'으로, 『신증유합』(1576)과 『석봉천자문』(1583)에서는 '빈'으로 적혀 있다.[27]

그리고 불교경전이나 유교경전을 한글로 번역한 『번역소학(飜譯小學)』,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야운자경서(野雲自警序)』, 『논어언해(論語諺解)』, 『중용언해(中庸諺解)』 등의 16세기 문헌에서는 賓 외에도 한국한자음이 -in인 것이 -iŋ으로 기록된 것들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진섭(臻攝) 진운(眞韻)의 -in이 증섭(曾攝) 증운(蒸韻)의 -iŋ으로 기록된 경우이다. 예컨대 賓, 擯, 鬢, 嬪, 頻, 蘋, 牝(빈)이 '빙'으로, 忍, 仞, 刃(인)이 '잉'으로 親(친)이 '칭'으로도 기록된 경우이다.[28]

---

24) 坂井健一, 『魏晉南北朝字音研究—經典釋文所引音義攷—』 東京: 汲古書院, 1975, 391면.

25) 賓의 중고음은 각각 李榮 piěn, 邵榮芬 pjen, 풀리블랭크 pjin, 鄭張尙芳 piɪn, 潘悟雲 pin으로 재구했으며, 氷의 중고음은 李榮 piəŋ, 邵榮芬 pieŋ, 풀리블랭크 piəŋ, 鄭張尙芳 piŋ, 潘悟雲 piŋ으로 재구했다.

26) 客家語는 廣東省 동부·북부, 廣西省 남부, 福建省 서부, 江西省 남부의 방언이며, 潮州語는 閩南語의 한 갈래로 廣東省 동부에서 사용된다.

27) 『訓蒙字會』 中2a "賓 손 빙"; 『(光州版)千字文』 6a "賓 손 빙"; 『石峰千字文』 6a "賓 손 빈"; 『新增類合』 上17b "賓 손 빈"

그와는 반대로 -ŋ이 -n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 예컨대 仍(잉)이 '인'으로, 稱(칭)이 '친'으로, 迎(영)이 '연'으로 기록된 것이다.[29] 이에 대해 하시모토 만타로(橋本萬太郎)는 경섭(梗攝)의 연구개 운미 -ŋ이 唐代 어느 시기에 경구개 운미 -ɲ으로 변하였는데 그것이 후에 증섭(曾攝)의 -ŋ으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그 가운데 일부가 -ɲ과 비슷한 -n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30] 그러나 賓에서 臻攝 眞韻의 -in이 曾攝 蒸韻의 -iŋ으로 나타난 것은 오히려 그와 반대의 경우이다. 이토 지유키(伊藤智ゆき)는 이를 曾攝과 梗攝의 -ŋ이 -ɲ으로 변한 후에 -ɲ과 -n이 전설(前舌) 협모음(狹母音) i 뒤에서 잘 변별되지 않아 -ŋ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n으로 표기되기도 한 것으로 이해했다.[31] 영어에서도 going이 goin'으로 발음되듯이 모음 i에 이은 ŋ이 n이 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다.

그 이유야 앞으로도 천착해야 할 과제이지만 賓之가 氷之로도 기록된 것은 불가사의한 현상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32] 그리고 뒤에 서술하듯이 그 어원을 추적하면 오히려 氷之가 초기의 음에 맞는 표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伊藤智ゆき, 『朝鮮漢字音研究(資料篇)』, 東京: 汲古書院, 2007b, 160면. 고노 로쿠로(河野六郎)는 賓을 포함한 몇몇 글자들이 본래 빈, 빙의 두 가지 음을 가졌었다고 하였다. 河野六郎, 『河野六郎著作集』, 東京: 平凡社, 1979, 438-439면.

29) 현대 중국어에서 皿(명)을 민[min]으로, 勁(경)을 진[jin]으로 읽는 것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30) Mantaro, J. Hashimoto, "Internal Evidence for Ancient Chinese Palatal Endings", *Language*, Vol.46, No.2, New York: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1970, pp.340-342, pp.351-354: 하시모토 만타로(橋本萬太郎), 「韓國漢字音과 中古中國語 高口蓋韻尾」, 『어학연구』 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3, 7-11면. 하시모토의 견해는 일본 학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平山久雄, 「隋唐音系裏的脣化舌根音韻尾和硬顎音韻尾」, 『平山久雄語言學論文集』, 北京: 商務印書館, 2005, 59-83면.

31) 伊藤智ゆき, 2007a 앞의 책, 193-194면.

32) 이러한 사례는 北京方言에서도 나타나고, 우리나라 고대 인명과 지명표기에서도 나타난다. 권인한, 「한자음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1997, 305-306면; 감산사아미타여래조상기(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720)의 중아찬 김지전(金志全)은 『삼국유사』에는 김지성(金志誠)으로 나타나며,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 보덕왕(報德王)의 이름 안순(安舜)은 신라쪽 기록에는 안승(安勝)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였다. 『삼국유사』 권3, 塔像 南月山; 『삼국사기』 권10, 고구려본기 寶藏王 下.

4. 멀고 외진 곳 빈지

빈자는 좁은 구역의 촌 이름으로도 쓰였고 넓은 지역을 지칭하는 방의 이름으로도 쓰였고, 특히 두 곳의 지명으로 쓰였으므로 특정의 의미를 지닌 일반명사의 속성을 지닌 낱말이었을 것이다. 『동경잡기』에서 경주의 방(坊)을 열거할 때에 內坊, 外坊과 함께 빈자를 열거하였으므로 빈자도 안, 밖과 같은 기준의 의미를 지닌, 즉 위치를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 그리고 노동3방 가운데 경주 중심부에서 내방, 외방보다도 더 먼 곳에 있었으므로, 떨어져 나간 곳으로 여길 정도로 아주 먼 곳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빈지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비바람을 막기 위해 문에 덧붙여 바깥쪽에 덧댄 문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바깥문보다도 더 밖에 있는 문이므로 빈지가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명 가운데 '빈지, 빈자, 반자, 반지'에 '골' 또는 '동(洞)'이 붙은 지명은 경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대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중심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서, 깊숙한 산골 외딴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33]

이런 마을들은 높은 산이 많은 강원도에 특히 많은데 한 예로 강원도 양양 서면 갈천리의 빈자골을 들 수 있다.[34] 빈지동, 반지골이라고도 하는 빈자골은 양양군 읍치에서 직선거리로 20km나 떨어진 남동쪽 끝 해발고도 약 550m에 이르는 곳에 있는 산골 마을이다. 구불불한 산길을 한참 돌아야 들

33) 빈지, 빈자, 반자 지명은 포털사이트에서 21개가 검색된다. ①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빈지골, ②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빈자골/반지골/빈지동, 양양군 현북면 도리 빈지골,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빈지골,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빈지골(빈지동・빈자동), 정선군 남면 문곡리 빈지골,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빈지골, 정선읍 광하리 웃빈지골/아랫빈지골, 정선읍 애산리 빈지골,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빈지골,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빈지골,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빈지골, ③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반지골, 청송군 부남면 중기리 반자골(盤子谷), ④경상남도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반자동,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반지골,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반지골[10-501], ⑤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황리 빈잣골[14-84], ⑥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반지골, ⑦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현내리 반자골, ⑧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용강리 빈지골이 있다,

34) 갈천리 빈자골은 조선총독부 陸地測量部의 1:50,000지형도 〈北盆里〉(1918)에는 彬之洞으로, 『한국지명총람』에는 彬地洞으로 기록되었다.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2(강원도)』, 1967, 214면.

어갈 수 있고, 주변은 표고 1,000m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곳에서 홍천으로 넘어가는 구룡령(1,058m)은 인제로 넘어가는 한계령(1,004m)보다도 더 높다(〈그림 5〉).



〈그림 5〉 양양 서면 갈천리의 빈지골
* 표시된 도로는 일제강점기의 구도로이다.
■ 국토지리정보원, 1:50.000 온맵지형도 〈설악〉·〈속초〉·〈현리〉·〈연곡〉(2015). 등고선 간격 100m. 200m 간격으로 색을 짙게 함

한편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의 빈지골도 광주 중심가에서 남동쪽 끝의 여주와의 경계선 구역에 있다(〈그림 6〉). 이곳은 인구도 많지 않은 외진 곳이라서 별도의 행정구역을 이루지 않았으나 1914년에 진골[知音里], 풀무개[冶浦洞], 국정개[國井浦洞] 세 마을을 합하여 삼합리(三合里)로 하였고, 빈지골은 그때 세 마을과 함께 섞여 삼합리에 소속되었다. 그런데 광주군 삼합리 빈지골의 다른 이름이 '바깥말'이었다.[35] 그것은 빈지골의 뜻을 짐작하게 하는 이름이다.

자산 돌기촌은 과거 경주 석계리를 지칭하는데 빈지라는 이름은 석계리의 중심지 우돌[于珍: 上石]에서 약 5km 떨어진 척과리의 반자동에 남아 있다. 그 이유가 무얼까? 두 곳이 하나의 빈지였을 수도 있고, 각각 별도의 빈지였

3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上)』, 1985, 211면.



〈그림 6〉 경기도 광주 실촌면 삼합리의 빈지골
■ 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1:50,000지형도 〈陽坪〉(1918), 등고선 간격 40m.

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외동읍 석계리나 범서읍 척과리 반자동이 모두 빈지가 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일연이 척과리 빈지를 석계리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관련 자료가 너무도 소략해서 신빙도가 높은 근거를 대기는 어렵지만 빈지라는 지명은 석계리와 반자동을 아울러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석계리와 그 주변은 과거 경주의 행정구역 가운데 특별한 곳이었다. 그곳은 본래 경주의 영역과는 분리된 모벌군(毛伐郡)이었다. 毛伐郡은 모화군(毛火郡) 또는 문화군(蚊化郡)으로도 기록된 것으로 보아 남쪽 벌을 뜻하는 이름이었을 것이다. 火, 伐은 물론 '벌(原)'을 가리키는 말이고 경주 蚊川이 남천을 뜻하듯이, '모긔[蚊]'는 남쪽을 뜻하는 글자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우리말의 남풍을 뜻하는 '마파람'에 남아 있는 '마ㅎ'의 원형이 '마ㄱ'으로 추정되고, 이는 칼그렌(B. Karlgren)이 재구한 毛의 상고음 *mog, 리팡구이(李方桂)가 재구한 *mag^{w}와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36]

36) B. Karlgren, op. cit., GSR No. 1137a; 李方桂, 『上古音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1980, 62면. 상고음에서는 한자의 陰聲字 일부에 운미가 있었다는 이론은 1928년에 독일의 발터 지몬(W. Simon)이 제기한 이래로 Karlgren, 董同龢, 藤堂明保 등이 이어받았고 李方桂는 모든 글자가 CVC

그런데 722년(성덕왕 21)에 왜군의 침입을 막고자 지금의 경주와 울산 경계에 관문성(關門城, 毛伐郡城)을 쌓았다. 이를 계기로 757년(경덕왕 16)에 모화군을 임관군(臨關郡)으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그 후로 고려 때에 이르러 임관군은 경주에 합쳐졌다.[37] 따라서 모벌군, 임관군의 영역은 아마도 모화리에서 관문성에 이르는, 지금의 모화리, 문산리, 석계리, 녹동리와 반자동 일대를 포괄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경주와 분리된 지역이었던 지금의 모화리 이남은 조선시대에도 일반적인 경주군 내의 구역과는 달리 취급했던 것 같다. 『동경잡기』에서 東面의 여러 坊을 언급할 때에도 입실[入谷]에서 구어역(仇於驛)까지를 노서(路西)의 1방이라 했고, 해마다 전세부과를 위해 농사의 풍흉 연분(年分)을 심정(審定)하는 단위였던 동(同)에서도 입실부터 구어역까지를 삼동초(三同初)라고 하고는 모화리 이남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에도 임관군 모화리, 문산리, 석계리, 녹동리, 반자동 일대는 특별히 다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석계리와 반자동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곳이 아니었다. 1927년에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작성한 지도를 보면 석계리의 중심지 우돌[于珍], 즉 상석(上石)에서 번자동(繁子洞), 즉 반자동 사이로는 산의 능선이 지나고 있어 반자동이 경주와 지리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전혀 별개의 곳이 아니었다. 〈그림 4〉에도 보이듯이 관문성의 서쪽 끝은 표고 400m 지점 언저리에서 끝나고 그곳에서 표고 640m 지점까지의, 석계리와 번자동(반자동) 사이는 성벽으로 가로막혀 있지 않으며 좁은 길이나마 소로(小路)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석계리에서 녹동리를 거쳐 반자동에 이르는 지역을 통틀어 빈지로 부르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빈지는 반자가 되었고 지칭하는 범위도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상고음 체계를 발표하여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음성자는 상고음에도 운미가 없었다는 이론이 현재는 우세한 듯하지만 우리말 한자표기를 보면 운미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경우가 적지 않다.

37) 『삼국사기』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二十一年 築毛伐郡城 以遮日本賊路"; 권34, 地理志1 良州 "臨關郡 本毛火(一作蚊化)郡 聖德王築城 以遮日本賊路 景德王改名 今合屬慶州"

좁아졌을 것이다. 1669년의 『동경잡기』에서는 직선거리로 4km 남짓 되는 괘릉부터 용가산 사이가 모두 빈자로 지칭되다가 1932년의 『경주읍지』에서는 신계, 괘릉 근처의 좁은 구역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남았듯이, 13세기 『삼국유사』에서는 석계리에서 반자동에 이르는 구역을 지칭했던 빈지가 18세기 『호구총수』에서는 지금의 척과리의 일부인 반자동으로 남았을 것이다.

5. 賓之, 賓子, 盤子, 本彼의 /*pan/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뜻의 빈지는 어떻게 本彼部가 되었을까? 本彼(본피)는 때로는 本波(본파)로도 나타나는데, 문헌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本彼/本波가 금석문이나 목간에서는 적잖이 발견되었다. 권인한은 『삼국사기』의 "서원(西原)을 비성(臂城)이라고도 한다"에서 臂를 '原'에 해당되는 지명형태소로서 '팔[臂]'에 해당되는 중세국어 'ᄇᆞᆯ'을 표현하기 위한 글자로 보았다. 그리고 彼/波의 리팡구이의 재구음 *pjar/*par, 정장상팡(鄭張尙芳)의 재구음 *pral?/*paal이나 일본어 hara(原)의 고어 *para가 모두 'ᄇᆞᆯ'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종래의 本彼에 관한 해석에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38]

중국에서도 後漢, 三國時代에 외국어의 *par를 대역하는 글자로 波를 자주 사용하였고,[39] 진리신(金理新)은 波를 *par로 재구하기도 했다.[40] 彼와 波의 상고음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표 4〉를 제시했다.[41]

---

38) 권인한, 「고대 지명형태소 '本彼/本波'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2, 한국목간학회, 2008. 本彼/本波는 빈지촌, 빈자촌처럼 여러 곳에 있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 지명이며,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本波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本'을 뜻 표기로 보아 대개 '근본, 중심지'로 해석하고, 때로는 지명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39) 兪敏, 「後漢三國梵漢對音譜」, 『兪敏語言學論文集』, 北京: 商務印書館, 1999, 41면.

40) 金理新, 『上古漢語形態研究』, 合肥: 黃山書社, 2006, 302면.

41) B. Karlgren, op. cit., GSR No. 25g・25l; 董同龢, 『上古音韻表稿』,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1944, 188・186면; 王力, 앞의 책, 608・622면; 周法高, 張日昇・林潔明 編, 『周法高上古音韻表』, 臺北: 三民書局, 1973, 135・132면; 李方桂, 앞의 책, 54・53면; S. A. Starostin, *Reconstruction of Old Phonological System,* Moscow: Nauka, 1989(林海鷹·王冲 譯, 『古代漢語音系的構擬』,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10, 250면); A. Schuessler, op. cit., p.217; W. H. Baxter, op. cit., pp.414・748; W. H. Baxter & L. Sagart, *Old Chinese: A New Reconstr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329-330; 鄭張尙芳, 앞의 책, 433면; 潘悟雲, 앞의 책, 262

〈표 4〉 彼, 波의 상고음

	彼	波
	甫委切 幫母 支韻 止攝 重紐3等 開口 上聲	博禾切 幫母 戈韻 果攝 1等 合口 平聲
Karlgren	*pia	*pwâ
董同龢	*pǐwa(pǐwǎ?) 歌	*pwâ 歌
王力	*pǐai〉*pǐe 歌	*puai〉*pua 歌
周法高	*piwa 歌	*pwa 歌
李方桂	*pjiar 歌	*par 歌
Starostin	*paj?〉*páj 歌A	*pāj〉*pä 歌A
Schuessler	*pai?〉*piɑi 歌(1)	*pâi〉*pɑi 歌(1)
Baxter	*prjaj? 歌 *paj? 歌	*paj 歌 *pˢaj 歌
鄭張尙芳	*pral?〉*pra 歌$_1$	*paal〉*pa 歌$_1$
潘悟雲	*pral?〉*pra 歌$_1$	*pal〉*pa 歌$_1$

* 재구음 뒤에 상고음 韻部를 표시했다.
* 하나로 제시된 음과 〉 앞의 재구음은 전기상고음이고, 〉 뒤의 음은 후기상고음이다.
* 백스터의 아랫줄 재구음은 2014년 사가르와의 공저에서 수정한 음이다.
* 董同龢와 周法高는 彼를 合口呼로 보았다.
* ā, aa는 장모음이고 â는 ɑ와 같다.

彼는 3등자인데 초기 연구에서의 3등개음 *-i̯(ǐ)-는 현재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체로 슈에슬러(A. Schuessler) 이후로는 개음 *-ǐ-가 사라졌다.[42] 그리고 3등개음이 단모음에서 기원했다는 설을 따라 주요모음을 aa(ā, a:)로 하지 않고 a로 했다. 다음으로 彼의 재구음에서 백스터(W. H. Baxter) 이후 등장한 개음 *-r-은 彼가 重紐3等字이기 때문이다. 중뉴3등이 발생한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현재는 개음의 차이로 보고 그 개음이 上古의 *-r-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어 그것을 수용한 것이다. 유음(流音) 운미는 예전에는 리팡구이가 그랬듯이 *-r로 생각했으나 현재는 슈에슬러의 주장이 광범위하게 퍼져 *-l로 보고 있으므로 정장상팡과 판우윈(潘悟雲)도 *-l로 보고 歌$_1$部의 *-al로 설정했다. 그리고 상고음에는 상성의 꼬리자음 *-ʔ를 붙였다. 그 결과가 〈표 4〉에 반영된 것이다.

*pral?에서 상성 꼬리자음 *-ʔ는 후기상고음에서는 이미 사라졌거나 흔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본래 강도가 센 음이 아니었으므로 *pral?은 *pral로 실현되었다. *pral로 같은 유음 말음을 지닌 고대국어의 *par을 표현하는 데는

면.

42) 인쇄의 편의를 위해 3등개음 i̯는 ǐ로 대체한다.

큰 문제가 없다. 또한 운미의 -l은 후기상고음에서 사라져가는 도중에 있거나 완전히 사라졌을 터인데, 완전히 사라져서 *pral이 *pra가 되더라도 *par를 표현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자음 r에서는 음운도치가 활발하게 일어나 *pra가 *par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한편 波는 〈표 4〉에서 보듯이 근래에 *pāl로 재구한다. *pāl로 고대국어의 *par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운미 *-l이 완전히 사라지면 *pa가 되어 *par를 표현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그 후에는 彼, 波를 사용하지 않고 벌(伐), 화(火)를 사용하여 벌[原]을 표현했을 것이다. 다만 本彼/本波는 오랜 구형 표기이기는 하지만 지명 표기의 보수성에 의해 그 후로도 상당 기간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彼는 /*par/로 읽어야 하며 그것은 '벌[原]'의 음을 표현한 것이다.

〈표 5〉 本의 상고음과 중고음

布忖切 幫母 魂韻 臻攝, 1等 合口 上聲			
Karlgren	*pwən		puən
董同龢	*pwə̆n	文	puən
王力	*puən〉*puən	文	puɐn
周法高	*pwən	文	puən
Pulleyblank	*pwən	文	pən'
李方桂	*pən	文	puən
Starostin	*pə̄r〉*pə̄n	文C	pón
Schuessler	*pə̂n?〉*pən	文(1)	pwən
Baxter	*pɨn?	文	pwon
鄭張尙芳	*pɯɯn?	文$_1$	puun
潘悟雲	*pɯn?	文$_1$	puon

그리고 本의 상고음과 중고음을 〈표 5〉에 제시했다.[43] 표에 보이듯이 상고음은 대체로 *pɯn, 중고음은 pən에 가깝다. *pɯn의 주요모음 ɯ는 안정되지 않은 모음으로 i, a, u, o 어느 것에도 대응한다 했으므로,[44] 賓, 盤의 모음 i, a도 ɯ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런데 賓之의 *pin, 盤子의 *pwan, 本彼의 *pɯn은 알타이 조어(祖語)에서 갈라져 나온 말로 생각된다. 원시알타이어로 멀리 분리되다, 방출하다는 뜻의 말로 *pǐŋa가 있었고, 그것이 퉁구스만주어에서는 *pǐŋta, 에벤키어에서는 hiŋtal, 일본어에서 *pana가 되었다.[45]

43) B. Karlgren, op. cit., GSR No. 440a; 董同龢, 앞의 책, 219면; 王力, 앞의 책, 608·638면; 周法高, 앞의 책, 211면; E. G. Pulleyblank, "The Final Consonants of Old Chinese," *Monumenta Serica*, Vol.33, Sankt Augustin: Monumenta Serica Institute, 1977-78, p.203; E. G. Pulleyblank, op. cit., p.32; 李方桂, 앞의 책, 48면; S. A. Starostin, 林海鷹王冲 譯, 앞의 책, 274·301면; A. Schuessler, op. cit., p.330; W. H. Baxter, op. cit., p.427; 鄭張尙芳, 앞의 책, 273·242면; 潘悟雲, 앞의 책, 262·87면.

44) 潘悟雲, 앞의 책, 212면.

별[星]을 뜻하는 일본어 hosi가 중세일본어 fosi에서, 그리고 다시 고대일본어 *posi에서 유래되었듯이,[46] 고대일본어의 *p-는 중세일본어의 f-를 거쳐 현재 h-가 되었다. 그래서 *pana는 fana를 거쳐 hana가 되었고 그것에서 hanare(はなれ, 離れ)라는 말이 성립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시알타이어의 발원지와 일본열도 사이의 한반도에서 아주 오랜 고대에 일본어와 비슷한 말이 있었을 가능성은 꽤 높다. 일본어는 자음 뒤에는 모두 모음이 따르는 개음절어(開音節語)였지만, 고대 한반도의 언어가 개음절이었다고 보는 견해는 거의 없다.[47] 일본어 *pana에서 개음절어의 특성을 제거하면 /*pan/이 된다. 그리고 盤(pan), 賓(pin), 本(pun)이 모두 pVn의 형태를 띠고 있다.

결국 賓, 盤, 本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우리말 소리를 표기한 글자이다. 그러한 결론에 이르면 괘릉 근처에서 內坊은 물론 外坊에도 포함되지 않는, 떨어져 나간 괘릉 근처의 빈지, 빈자를 생각할 수 있고, 경주 중심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석계리와 반자동을 빈지, 반자로 설정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 '빈'을 표현하기 위해 손님이라는 뜻의 '賓'을 쓴 것도 멀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빈지(賓之), 반자(盤子)의 之, 子는 모두 지섭(止攝)의 글자이므로 백제, 신라의 음으로는 江東方音 '지[*ʦi/*ʨi]'로 읽는 것이 옳으며 그것은 장소를 뜻하는 접미사와 같은 음절로 추정된다. 그리고 빈지(賓之)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빈지[賓子]'는 점차 한자음에 충실하여 '빈자'로 변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들은 본래 원시알타이어의 *piŋa에서 유래되었으므로 氷之가 원래의 음에 충실한 표기였을 것이다. -iŋ은 종종 -in으로 음운 변화를 보이므로 그 후로 차츰 賓之라는 표기가 나타났고 나중에는 *pin이 *piŋ을 능가하여 일반화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pin이 *pan으로 변하여 盤子라는 표기도 발생하고 일본으로 전해져 고대일본어의 *pana(離)가 되지

45) S. Starostin, A. Dybo and O. Mudrak,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Altaic Languages*, Leiden・Boston: Brill, 2003, p.1090.
46) 大野晉, 『日本語の起源』, 東京: 岩波書店, 1957, 170면.
47) 예외적으로 이병선은 고대국어를 開音節語로 보았다. 이병선, 「고대국어 開音節에 대하여—CVCV型의 가설제기로서—」, 『국어학논고』, 아세아문화사, 1993.

않았다 한다.

6. 아득히 먼 들 碧珍의 /*park/와 本彼

本彼가 '먼 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은 벽진가라(碧珍伽耶)라는 지명에서 다시 확인된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일리군(一利郡)이 통일신라 경덕왕 때에 성산군(星山郡)이 되어 영현(領縣) 넷을 거느렸는데 그 가운데 신안현(新安縣)은 본래 신라의 본피현(本彼縣)으로서 경덕왕 때에 신안현이라 고쳤고, 고려 때에 경산부(京山府)가 되었다고 한다.[48] 한편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신라의 본피현을 경덕왕이 신안현으로 고쳐서 성산군의 영현으로 삼았고 후에 벽진군(碧珍郡)으로 고쳤다가 940년(태조 23)에 경산부가 되었다고 한다.[49]

경산부의 연혁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신라 본피현(本彼縣)이 통일신라에서 신안현(新安縣)이 되었고 후삼국시대를 즈음해서 벽진군(碧珍郡)이 되었으며[50] 고려 초에 경산부(京山府)가 된 것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따르면 5가라로 아라가라(阿羅伽耶), 고령가라(古寧伽耶), 대가라(大伽耶), 소가라(小伽耶), 성산가라(星山伽耶)가 있고, 성산가라는 벽진가라(碧珍伽耶)라고도 했다 한다.[51]

'성산군'은 757년(경덕왕 16) 통일신라 시기의 이름이므로 성산가라라는 이름은 가라가 존재했던 시기의 이름이 아닐 것이다. 신라가 가라를 병합한 뒤에 이미 망한 나라의 별칭을 굳이 둘씩이나 썼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 가운데 하나는 예전 이름이고 하나는 새로 생긴 이름일 것이다. 성

48) 『삼국사기』 권34, 지리1 康州 "**星山郡** 本一利郡一云里山郡 景德王改名 今加利縣 領縣四 **壽同縣**(…)**谿子縣**(…)**新安縣** 本本彼縣 景德王改名 今京山府 **都山縣**(…)"

49) 『高麗史』 권57, 地理志2 "京山府 本新羅本彼縣 景德王改名新安 爲星山郡領縣 後改爲碧珍郡. 太祖二十三年更今名" 碧珍郡이라는 이름은 『고려사』 세가의 태조 1년 기사에서 확인된다.

50) 벽진가라는 현재 성주군의 벽진면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51) 『三國遺事』 권1, 紀異 五伽耶 "阿羅伽耶(今咸安), 古寧伽耶(本咸寧), 大伽耶(今高靈), 星山伽耶(今京山, 一云碧珍), 小伽耶(今固城) 又本朝史略云 太祖天福五年庚子 改五伽耶名 一金官(爲金海府), 二古寧(爲加利縣), 三非火(今昌寧, 恐高靈之訛) 餘二 阿羅, 星山(同前, 星山或作碧珍伽耶)

산가라는 신라가 가라를 아울러 성산군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에 생겨난 이름이고 그 전의 본래 이름은 벽진가라였을 것이다.[52] 즉 원래 이름은 벽진가라인데 경덕왕 때의 신라 사람들은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성산가라라는 이름으로 불렀을 것이다. 그러므로 벽진가라가 멸망하여 신라의 영역이 되면서 본피현이 되었고, 경덕왕 때에 군현 명칭을 중국식으로 개정할 때에 신안현이 되었다가 후삼국으로 짐작되는 시기에 후백제, 후고구려가 등장하면서 다시 옛 국호들이 등장했을 때에 가라에서도 예전의 벽진(碧珍)이라는 이름을 회복하여 벽진군이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다가 후삼국시기에 벽진의 호족 이총언(李悤言)이 고려의 개국공신이 된 것을 계기로 940년에 경산부로 승격되었던 것이다. 그 연혁을 〈그림 7〉로 정리하였다.



〈그림 7〉 碧珍伽耶의 명칭 변화

碧珍가라가 이어서 本彼縣이 되었으므로 碧珍은 本彼와 상통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다. 碧珍은 무슨 뜻일까?

우선 碧의 상고음은 〈표 6〉과 같이 재구된다.[53] 碧의 반절은 『광운』에서 피역절(彼役切)로, 『집운』에서 필극절(筆戟切)로 제시되어 있다.[54] 筆戟切은 방모(幫母) 맥운(陌韻)에 3등 개구 입성이고, 彼役切은 방모(幫母) 석운(昔韻)에

52) 加耶(伽耶)의 耶는 중고음은 ja이고 상고음은 *la이다. 상고음 *la는 우리말 *ra를 표현한 것이므로 加耶와 加羅는 모두 '가라'로 읽어야 한다. 정연식, 「신라의 초기 국호 사라벌[徐羅伐]과 시라[斯盧]의 뜻」, 『동아시아문화연구』 72, 2018, 19-23면.

53) B. Karlgren, op. cit., GSR No. 782s; 董同龢, 앞의 책, 176면; 王力, 앞의 책, 608·625면; 周法高, 앞의 책, 64면; 李方桂, 앞의 책, 58면; S. A. Starostin, 林海鷹王冲 譯, 앞의 책, 247면; W. H. Baxter, op. cit., p.485; W. H. Baxter & L. Sagart, op. cit., p.225; A. Schuessler, op. cit., p.73; 鄭張尙芳, 앞의 책, 268면; 潘悟雲, 앞의 책, 262면.

54) 『廣韻』 入聲 22昔 碧小韻; 『集韻』 入聲 20陌 碧小韻

3등 합구 입성이다. 왕리(王力)는 상고의 탁부(鐸部)는 중고에 탁운(鐸韻), 맥운(陌韻), 석운(錫韻)이 되었고, 석부(錫部)는 중고에 陌韻, 錫韻이 되었다고 하였다. 즉 중고의 陌韻과 錫韻이 상고의 鐸部. 錫部 양쪽에서 유래되었다고 본 것이다.[55] 그러므로 昔韻, 陌韻은 상고에 鐸部였을 수도 있고, 錫部였을 수도 있다.

〈표 6〉 碧의 상고음

筆戟切		
幫母 陌韻 梗攝 3等 開口 入聲		
Karlgren	*pĭăk	
董同龢	*pĭek	佳
王力	*pĭak	鐸
周法高	*pjiek	錫
李方桂	*pjiak	魚
Starostin	*prek	錫
Baxter	*pjak	鐸
Baxter・Sagart	*prak	鐸
Schuessler	*prak	鐸
鄭張尙芳	*prag	鐸
潘悟雲	*prak	鐸

* 周法高와 李方桂는 입성 운부를 별도로 두지 않고 錫部는 佳部에, 鐸部는 魚部에 포함시켰다.

筆戟切은 상고음에서 운미 *-ak를 지니는 鐸部에 속하고 彼役切은 운미 *-ek를 지니는 錫部에 속한다. 칼그렌, 왕리, 리팡구이는 鐸部로 보아 *-ak으로 재구했고, 둥퉁허(董同龢), 저우파가오(周法高), 스타로스틴(S. A. Starostin)은 錫部로 보아 *-ek으로 재구했다. 그러나 근래에 백스터, 슈에슬러, 정장상팡, 판우윈은 모두 鐸部에 속한 것으로 보아 *-ak/*-ag로 재구하였다.

한편 초기 연구에서 설정했던 상고음의 3등개음 ĭ를 현재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스타로스틴 이후로 ĭ가 사라졌고, 백스터도 후에 사가르(L. Sagart)와의 공저에서 *-j(ĭ)-를 철회했다.

결국 碧은 *prak으로 읽어야 한다. 그런데 碧[*prak]은 어떤 우리말을 표현한 글자였을까? 당시 중국어에는 성모에는 겹자음 복성모가 있었지만 운미에는 겹자음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말 고대국어에는 중국어의 성모에 해당되는 초성에는 겹자음이 없었고,[56] 운미에 해당되는 말음에는 겹자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대국어의 *park을 그대로 표현할 한자가 없었다. 그런데 *prak을 발음하면 음운도치로 인해 *park와 거의 같게 들린다. 그래서 碧[*prak]을 취하여 우리말의 *park를 표현한 것이다.

55) 王力,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2013, 99면.

56) 중세국어의 ᄠᅳᆯ(딸), ᄲᅡᆯ(쌀)에는 초성에 겹자음이 있었지만 『鷄林類事』에서 딸을 보달(寶妲). 쌀을 보살(菩薩)이라 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중세국어의 초성 겹자음은 고대국어의 두 음절이 어중음소실(syncope)에 의해 중세국어에서 한 음절로 줄어든 결과이다.

한편 珍[*tɯn]은 우리말 *tur을 표현하기 위한 글자라고 했다. 그러므로 碧珍은 /*parktur/이 된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아주 먼 벌을 뜻하는 本彼 /*panpar/와 통하게 되었을까?

원시알타이어의 *p^h-는 대체로 고대퉁구스어에서 *p-, 고대몽골어에서 *h-, *j-로, 고대튀르크어에서 묵음 또는 *j-로, 고대한국어와 고대일본어에서는 *p-로 나타났다.[57] 그래서 멀다는 뜻의 원시알타이어 *p^hirá-k^{h}V도 고대몽골어에서는 *hiriče, 고대튀르크어에서는 *ɨrak, 고대일본어에서는 *pàrúkà가 되었다.[58] 앞서 말했듯이 일본어의 *p-는 f-를 거쳐 h-가 되었으므로 *paruka는 *paruka 〉 faruka 〉 haruka의 과정을 거쳐 현재 멀다, 아득하다는 뜻의 haruka(はるか: 遙か)로 남았다. 그러므로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의 우리말에도 *paruka와 유사한 말이 있었을 것이다. 고대 우리말은 모든 자음에 모음이 붙는 일본어와 같은 개음절어가 아니었으므로 일본어의 *paruka는 우리말의 *park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즉 碧[*prak]으로 표현된 고대국어 *park은 일본어의 '하루카'와 같은, 아득히 멀다는 뜻이다.



〈그림 8〉 金官가라에서 가장 먼 碧珍가라

가라[加耶] 이름에 왜 멀다는 뜻의 碧珍(*park)이 붙었을까? 가라연맹의 맹주는 금관가라였으므로 김해는 가라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벽진가라는 중심지 금관가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그림 8〉).[59] 마치 6부의 본피부가 가장

57) S. Starostin, A. Dybo and O. Mudrak, op. cit., pp.25-28.
58) Ibid., p.1144.
59) 『삼국사기』 권34, 지리지1 尙州에는 "古寧郡 本古寧加耶國 新羅取之 爲古冬攬郡(一云古陵縣) 景德王改名 今咸寧郡"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古靈가라가 尙州市 咸昌邑에 있었다고 주장되기도 하지만, 고령가라가 함녕군이라는 기록은 『삼국사기』의 다른 기록과 어긋난다. 상주 지역은 이미 3세기 沾解王 때 신라가 점령하여 沙伐州를 설치했다.

중심세력이었던 (及)梁部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6가라, 5가라가 후대의 관념이고 실제로는 가야연맹이 더 많은 지역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碧珍이 아주 먼 곳임에는 변함이 없다. 碧珍의 碧[*prak]은 아득히 멀다는 뜻의 고대국어 *park를 표현하기 위한 글자이다.

한편 珍은 돌[石]을 뜻하기도 하지만 음이 비슷한 들[原, 坪]을 뜻할 수도 있었다. 다음은 그 사례이다.[60]

(가) 貴旦縣 本仇斯珍兮
(나) 珍原縣 本百濟丘斯珍兮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가), (나)에서 貴旦=仇斯珍兮=丘斯珍兮=珍原의 관계에 따라 貴旦=珍原이 성립하므로 珍은 貴와 통한다. '珍'은 『훈몽자회』에서는 '구슬', 『신증유합』, 『석봉천자문』에서는 '보ᄇᆡ'라 하였는데[61] 그것을 표현하는 우리말이 '仇斯' 또는 '丘斯'였음을 알 수 있다. 支部의 斯는 중세국어에서 'ᄉᆞ'로 읽었으나, 삼국시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강동방음에 따라 *si로 읽어야 하므로 仇斯, 丘斯는 *kusi로 재구된다. 그리고 *kusi는 *kus의 말음 -s가 외파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훈몽자회』에서 珍의 해석으로 제시된 '구슬'은 '굿(kus)+알'에서 유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가)에서는 '珍兮'가 '旦'에 대응한다. 旦의 상고음 *tāns, 중고음 tɑn은[62] 앞서 밝혔듯이 중국어에서 유음이 사라진 후에 -n으로 -r을 표현하던 방식에 따라 고대국어 *tar의 표현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한편 珍兮가 (나)에서는 '原'에 대응하고 있다. *tɯn으로 재구되는 珍은 고대국어 *tur의 표현에 사용되었다. 兮의 상고음은 *ɢe 또는 *ge로 재구되고,[63] 지부(支部), 지섭(止攝)에 속하며, 삼국의 지명표기에

60) 『삼국사기』 권37, 지리지4 分嵯州; 권36, 지리지3 武州 岬城郡
61) 『訓蒙字會』 중15b '珎 구슬 딘"; 『新增類合』 상26a "珍(珎) 보ᄇᆡ 딘"; 『石峰千字文』 3b "珎 보ᄇᆡ 딘"
62) 旦의 상고음, 중고음을 Baxter, 鄭張尙芳, 潘悟雲은 모두 *tans〉tɑn으로 재구했다(W. H. Baxter, op. cit., p.753; 鄭張尙芳, 앞의 책, 300면, 249면; 潘悟雲, 앞의 책, 26면, 87면).
63) 兮의 상고음〉중고음을 Baxter는 *ge〉hej, 鄭張尙芳은 *ɢe〉ɣei, 潘悟雲은 *ɢe〉ɦei로 재구했다(W. H. Baxter, op. cit., pp.206-207, p.492; 鄭張尙芳, 앞의 책, 496면, 245면, 247면; 潘悟雲, 앞의 책,

서 '溪(谿), 雞'로 대치되므로 *ki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64] 그러므로 珍兮는 *turki로서 *turk의 말음이 외파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坪, 原'을 뜻하는 '드르ㅎ, 들ㅎ'은. '돌ㅎ'이 그렇듯이, k가 h로 변함에 따라 생겨난 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碧珍은 碧坪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

本彼의 멀리 떨어졌다는 뜻의 本(/*pan/)과 아득하다는 뜻의 碧(/*park/)이 서로 통하고, 벌[原]을 뜻하는 彼(/*par/)가 들[坪]을 뜻하는 珍兮(/*turki/)에 대응함에 무리가 없다. 그런 이유로 碧珍가라가 本彼현으로 개명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碧珍의 碧[*prak]은 아득하다는 고대국어 /*park/를 표현한 글자이고, 本彼의 本[*pɯn]과 賓之의 賓[*pin]은 떨어져 나간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멀다는 고대국어 /*pan/을 표현한 글자로서 의미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말에서는 사라져 버린 그 고대국어는 원시알타이어의 흔적이다.

7. 맺음말

『삼국유사』의 신라 6촌 가운데 珍支村은 삼국시대 신라의 한자음으로는 '돌기촌'으로 읽으며, 돌기촌[乭只村]은 외동읍 석계리의 예전 이름이다. 그리고 珍支村은 賓之, 賓子라고도 했는데 『동경잡기』에서 賓子는 괘릉부터 외동읍 연안리 남부의 용가산까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경주에는 빈자가 둘이 있었던 셈이다. 괘릉 쪽의 빈자는 반자(盤子)라고도 했으며, 석계리 쪽에서는 반자라는 지명이 『호구총수』(1789)에서 경주의 盤自洞里가 되었다가 일제강점기 기록에 盤子洞으로 등장하며 현재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의 盤子洞으로 남아 있다.

척과리 반자동은 아마도 초기에는 모화리 이남의 모벌군(毛伐郡, 毛火郡) 소속이었을 것이며, 722년에 지금의 경주와 울산의 경계선에 관문성을 쌓은 후

262면, 87면).

64) 김무림, 『고대국어 한자음』, 한국문화사, 2015, 227-228면.

로 모벌군은 임관군(臨關郡)이 되었고, 고려 때 임관군이 경주에 합속되면서 반자동도 경주로 이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주군에서 분리되어 울산군 소속이 되었고 지금도 울산시에 속해 있다.

그런데 『동경잡기』에서 내방(內坊), 외방(外坊)과 함께 경주 동면 노동3방을 이루고 있던 빈자는 경주 중심부에서 보면 내방, 외방보다도 더 바깥쪽에 해당된다. 그리고 『호구총수』의 반자동리는 외방면(外方面)의 리 가운데 경주 중심부에서 가장 먼 곳에 있다. 그리고 '빈지문'은 비바람을 막기 위해 문의 바깥쪽에 덧댄 문을 가리킨다. 빈지, 빈자, 반자라는 지명은 현재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곳들은 대개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양양 서면 갈천리의 빈지골, 경기도 광주 곤지암읍 삼합리의 빈지골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광주의 빈지골에는 '바깥말'이라는 별명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빈지의 뜻을 짐작케 한다.

賓之, 賓子, 盤子, 盤自와 本彼는 과연 어떤 뜻이며 어떻게 서로 통했을까? 삼국시대 신라의 한자음은 강동방음을 사용하였으므로 之, 子, 自는 당시 우리말에 파찰음[ʦ・ʨ]이 생성되어 있었다면 모두 /지/로 읽었을 것이므로 음운학적으로 서로 대체 가능하다. 彼의 상고음 *pral?은 우리말 *par의 표기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후기 상고음 *pra도 음운도치에 의해 *par를 표현할 수 있다. 즉 彼는 벌[原]의 초기 표기수단이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伐 또는 火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賓[*pin], 盤[*pwan], 本[*pɯn]은 모두 *pVn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원시알타이 조어(祖語)에는 멀리 분리되다, 방출하다는 뜻의 *pĭŋa라는 말이 있었다. 그것이 퉁구스만주어에서는 *pĭŋta, 일본어에서 *pana가 되었다. 고대일본어의 *p-는 중세일본어의 f-를 거쳐 현재 h-가 되었기에, *pana도 fana를 거쳐 현재 hanare(離れ)라는 말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원시알타이어의 발원지와 일본열도 사이의 한반도에서는 아주 오랜 고대에 일본어와 비슷한 말이 있었을 가능성은 꽤 높다. 일본어 *pana-에서 개음절어(開音節語)의 특성을 제거하면 /*pan/이 되며, 그것은 盤, 賓, 本의 *pVn 형태의 음과 같거나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賓, 盤, 本은 분리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멀리 떨어졌다는 뜻이며 '지[tsi: 之・子]'는 아마도 장소를 가리키는 접미사였을 것이다. 따라서 賓之, 賓子, 盤子는 멀리 떨어진 곳을, 本彼는 멀리 떨어진 벌을 뜻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의 賓之는 석계리에서 반자동까지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의 명칭이었다가, 후에 반자동에 국한된 명칭으로 남았을 것이다.

한편 경상북도 성주에 있었던 벽진가라[碧珍伽耶]는 후에 본피현(本彼縣)이 되었으므로 碧珍과 本彼도 서로 통하는 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碧珍은 상고음으로는 *praktɯn으로 재구되며 그것은 고대국어 *parktur를 표기하기 위한 글자였을 것이다. 원시알타이어의 멀다는 뜻의 *phira-khV는 고대일본어에서 *paruka가 되었고 현재 아득히 멀다는 뜻의 haruka(遙か)로 남았는데, 고대 일본어 가운데 상당수가 거쳐 간 한반도에도 아득히 멀다는 뜻의 *park가 있었을 것이다. 碧珍으로 표기한 우리말 *parktur에서, 碧[*prak]으로 표기한 *park는 아득히 멀다는 뜻이고 珍[*tɯn]으로 표기한 *tur은 들[坪]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碧珍은 아득히 먼 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本彼와도 완벽하게 연결된다. 가라연맹체 가운데 하나였던 성주의 집단세력이 김해의 金官가라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기에 碧珍가라라 부르고 가라가 멸망한 후에는 本彼縣을 두었던 것이다. 그것은 경주의 중심부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부를 本彼部라 했고, 그것을 빈지로 부르기도 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 참고문헌

국립경주박물관・경주시,『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1:10,000—』, 2008.

권인한,「고대 지명형태소 '本彼/本波'에 대하여」,『목간과 문자』2, 한국목간학회, 2008, 83-95면.

_____,「한자음의 변화」,『국어사연구』태학사, 1997, 283-344면.

김무림,『고대국어 한자음』, 한국문화사, 2015.

김원룡,「斯盧六村과 경주고분」,『역사학보』70, 역사학회, 1976, 1-14면.

이기동,「新羅 金入宅考」,『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183-208면.

이병도,『한국사(고대편)』, 을유문화사, 1959.

이병선,「고대국어 開音節에 대하여—CVCV型의 가설제기로서—」,『국어학논고』, 아세아문화사, 1993, 66-97면.

정연식,「신라의 초기 국호 사라벌[徐羅伐]과 시라[斯盧]의 뜻」,『동아시아문화연구』72,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8, 13-50면.

_____,「경주 부엉산 기슭의 돌마을, 자산(嵲山) 돌기촌[珍支村]」,『한국사연구』190, 한국사연구회, 2020, 35-81면.

하시모토 만타로(橋本萬太郎),「韓國漢字音과 中古中國語 高口蓋韻尾」,『어학연구』9-1, 서울대 어학연구소, 1973, 1-26면.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 2・5・7・17』, 1978・1979・1985.

今西龍,「新羅史通說」,『新羅史研究』, 京城: 近澤書店, 1933, 1-79면.

金理新,『上古漢語形態研究』, 合肥: 黃山書社, 2006.

大野晉,『日本語の起源』, 東京: 岩波書店, 1957.

董同龢,『上古音韻表稿』,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1944.

末松保和,「新羅六部考」,『京城帝國大學創立十週年紀念論文集(史學篇)』, 東京: 大阪屋號書店, 1936, 235-307면.

潘悟雲,『漢語歷史音韻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0.

三品彰英, 村上四男 編,『三國遺事 考證 上』, 東京: 塙書房, 1975.

邵榮芬,『切韻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王 力,『漢語語音史: 王力文集10』,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7.

_____,『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2013.

越智唯七,『(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京城: 中央市場, 1917.

兪敏,『兪敏語言學論文集』, 北京: 商務印書館, 1999.

伊藤智ゆき,『朝鮮漢字音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7.

李方桂,『上古音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1980.

李榮,『切韻音系』, 臺北: 鼎文書局, 1973.

鄭張尙芳,『上古音系(第2版)』,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13.

周法高, 張日昇・林潔明 編,『周法高上古音韻表』, 臺北: 三民書局, 1973.

坂井健一,『魏晉南北朝字音研究—經典釋文所引音義攷—』, 東京: 汲古書院, 1975.

平山久雄,『平山久雄語言學論文集』, 北京: 商務印書館, 2005.

河野六郎,『河野六郎著作集』, 東京: 平凡社, 1979.

Baxter, William H.,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2.

Baxter, William H., & Sagart, Laurent, *Old Chinese: A New Reconstr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Karlgren, Bernhard, *Grammata Serica Recensa*, Stockholm: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1957.

Mantaro, J. Hashimoto, "Internal Evidence for Ancient Chinese Palatal Endings", *Language*, Vol.46, No.2, New York: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1970, pp.336-365.

Pulleyblank, Edwin G., "The Final Consonants of Old Chinese," *Monumenta Serica*, Vol.33, Sankt Augustin: Monumenta Serica Institute, 1977-78, pp.180-206.

_____, *Lexicon of Reconstructed Pronunciation in Early Middle Chinese, Late Middle Chinese, and Early Mandarin*, Vancouver: UBC Press, 1991.

Schuessler, Axel, *Minimal Old Chinese and Later Han Chinese: A Companion to Grammata Serica Recens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9.

Starostin, Sergei A., *Reconstruction of Old Phonological System*, Moscow: Nauka, 1989(林海鷹·王冲 譯,『古代漢語音系的構擬』,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10).

Starostin, S., Dybo, A. and Mudrak, O.,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Altaic Languages*, Leiden・Boston: Brill, 2003.

국토지리정보원 통합지도검색,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2021.6.30 검색).

【Abstract】

Binji (賓之), the name of two places in Gyeongju, and the meanings of Bonpi (本彼) and Byeokjin (碧珍)

Chung, Yeon-Sik*

Binji (賓之) was another name of Dolgi-chon (珍支村) in Bonpi-bu (本彼部), one of the six villages of Silla. There were two Binjis in Gyeongju (慶州). One was located around Seokgye-ri (石溪里) called Dolgi-chon and the other around Gwaereung (掛陵). The former was the farthest village in Dongmyeon (東面) away from the center of Gyeongju, and the latter was the farthest zone among three zones of Nodong (路東) in Dongmyeon. So many Bingjis in Korea are far off from the center of counties too. Binji derives its name from Proto-Altaic *piŋa meaning 'separate, emit' together with Old Japanese *pana-, prototype of 'hanare (離れ)' meaning separated.

'本彼' could be reconstructed as *pənpra in Late Old Chinese. The phonetic transcription of '本[*pən] is similar to that of 賓[*pin] meaning 'separated away' and 彼[*pra] seems to be used to express Old Korean *par meaning 'plain' by r-metathesis. Byeokjin-gara (碧珍伽耶) was renamed Bonpi-hyeon (本彼縣), so 碧珍 seems to be related to 本彼. 碧[*prak] was used to express Old Korean *park, and it was derived from Proto-Altaic *p^{h}ira-k^{h}V meaning 'faraway' together with Old Japanese *paruka, prototype of 'haruka (遙か)'.

Old Korean *pintɕi (賓之) means far-off place, *pənpar (本彼) far-off plain, and *parktur (碧珍) faraway field. Three Old Korean words show the traces of Altaic language.

Keywords: Old Korean, Old Chinese, Altaic Language, Six Villages of Silla, Binji (賓之), Bonpi-bu (本彼部), Byeokjin-Gara (碧珍伽耶).

접수일: 2021.06.14. ‖ 심사일: 2021.07.08. ‖ 게재확정일: 2021.08.20.

* Professor, Dept. of History, Seoul Women's Univ.